

광주독립영화관 1주년

GIFT's gift



11일~5월 2일

영화 상영·영화인과 대화 등 다채



윤성현 연출 '파수꾼' (2010)



방은진 감독

다채로운 한국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광주독립영화관(관장 윤수안)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4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받아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동지들 톨 독립영화관은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하고 있다.

독립영화관은 1주년을 맞아 영문 이름(Gwangju Independent Film Theater-GIFT)을 빌려 기획전 'GIFT's gift'를 오는 11일부터 5월2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추천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인 등을 초청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날 오후 7시 배우 출신 여성감독 방은진 감독을 초청해 그의 네 번째 연출작 '메소드' (2017·15세 이상 관람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박성용, 윤승아 등이 출연한 이 영화에는 양림동과 사직공원 등 광주 곳곳이 작품 속에 등장한다.

한국 스틸러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2010·청소년 관람불가)의 장철수 감독은 14일 오후 7시 광주 관객을 찾는다. 장 감독은 자신의 데뷔작인 이 작품으로 '1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작

품을 받은 뒤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연출하며 흥행 감독으로 떠올랐다.

'항거:유관순 이야기', '얼굴들'의 주연을 맡아 인지도를 더한 배우 김세벽은 자신이 출연한 '국경의 왕' (연출 임정환·2019)을 가지고 관객과 이야기를 나눈다(18일 오후 7시·15세 관람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을 수상한 '선희와 슬기' (2018) 상영회에서는 연출을 맡은 박영주 감독과 이 영화를 추천한 안재훈 감독과 함께 나온다(20일 오후 3시·12세 관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시네마테크가 보유한 4편의 영화를 만나는 기회도 마련됐다. 김지하 ACC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는 22일 오후 7시 '24분의 1초의 의미' (1969·김구림), '구멍' (1974·한옥희), '오버 미' (1996·임정재), '철의 여인' (2008·김곡)을 선보이고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도 추천 영화를 들고 독립영화관을 찾는다. 광주극장의 김형수 전무는 24일 오후 7시 다큐멘터리 '파티51' (2013·청소년 관람불가) 정용택 감독과 함께 온다. '파티51'은 공연할 곳을 찾지 못해 해매는 흥대 인디 뮤지션들이 칼국수 식당 '두리반'이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예술적 농성을 펼치는 과정을 기록한 영화다.

나히덕 시인은 곡성 탐동마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인 할매' (2018·이종은)를 추천했다(26일 오후 7시·전체관람가). 이재훈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사냥의 시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윤성현 감독은 자신의 2010년 작품 '파수꾼'의 제작 뒷이야기를 꺼낸다(27일 오후 7시).

기획전 마지막 날 5월2일 오후 7시에는 '히치하이크' (2017·12세 관람가)가 대미를 장식한다. 이 작품은 열여섯 살 소녀 정애(노정희)가 어릴 적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 나서다 친구의 친아빠로 의심되는 현웅(박희순)을 만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조영각 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정희재 감독이 연단에 나선다.

상영 중인 3편 '시인 할매', '선희와 슬기', '히치하이크' 외의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다. 문의 062-222-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화 '히치하이크' 주인공 박희순(왼쪽)과 정희재(앞쪽) 감독.



신형철

정성일

'영화비평가 양성' 수강생 모집 광주독립영화관 26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이 '영화비평가 양성과정' 수강생 30명을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5월4일~6월20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토요일 오후 2시에 2시간 30분 동안 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총 13차례 진행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에는 영화평론가·영화감독 등 8명이 강사로 나선다. 신형철·김형중·조선대 교수가 '나는 이렇게 쓴다 1-2'를 주제로 강좌의 문을 열고 '세계 독립영화의 역사' (정재형 교수),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 (조영각 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캐릭터 분석, 미장센 분석' (강유정), '장르론, 작가주의' (강성률), '영화비평에서의 디테일의 방법론: (현기증)의 사례' (정성일), '편안하고 행복한 글쓰기' (김찬근) 등이 펼쳐진다.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이름·연락처·생년월일·신청동기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gjcinema@hanmail.net)로 내면 된다. 수강료는 10만원으로, 10강 이상 출석하면 강의료를 돌려준다. 양성과정은 수료하면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펴낸 예정인 영화웹진의 필자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2-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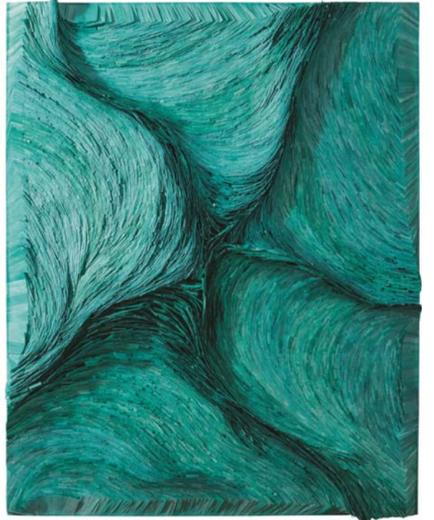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바람산책

광주롯데갤러리 30일까지...이경하·최요안·표인부 참여

'자연 속에서 느끼는 사색의 시간.'

표인부 작가의 '바람의 기억' 연작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딘가 정말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혀 조각낸 수천장의 한지를 캔버스 위에 하나하나 붙인 작품은 수많은 반복이 만들어낸 공력을 느끼게 해준다. 삶의 흔적과 생의 기억들이 바람에 실려 마음을 흔드는 그의 그림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도 든다. 무엇보다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해낸, 움직이는 대기의 '결'은 관람객을 한참 동안 작품 앞에 머물게 해준다. 한 작품 안에서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이 펼쳐지고, 변화무쌍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점이 매력적이다.



표인부 '바람의 기억'

광주롯데갤러리가 봄을 맞아 자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획전전을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 '바람산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7년째 '바람의 기억' 작업을 진행중인 표인부 작가를 비롯해 이경하·최요안 작가가 함께해 모두 2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목탄을 이용해 그리고 문지르고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작업을 해온 이경하 작가는 인위적 손길 없이도 스스로 생을 만들어가는 '풀'의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다. 검은색 목탄과 유채를 재료로 삼아 작가는 광주 중외공원, 제주도의 어느 공간, 화순 운주사의 척박한 땅과 그곳의 잡초와 풀을 통해 꿈틀거리는 생명의 이미지를 표현해냈다. '토마토 기르기' 작품은 검은 흙속에서 싹을 틔우고 붉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잘게 찢거나 자른 종이를 캔버스에 콜라주해 회화적 화폭을 구성하는 최요안은 형형색색의 풍경화를 전시한다. 종이는 주로 정제전의 현채방 거리에서 구입한 중고잡지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와 색채에 맞춰 잘라내고 찍어낸 종이 조각은 서정적인 풍경으로 완성돼 색다른 느낌을 준다.

전시 기간중에는 관람객 참여프로그램으로 미니 식물원 만들기(주말 오후 2시~6시·참가비 무료) 행사도 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창작곡 모집

'9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창작곡을 오는 15-18일 모집한다. 올해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은 '지켜라! 오월의 역사를! 싸우라! 진실의 노래로!'를 주제로 5월25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사)오월음악이 주최하는 오월창작가요제는 지난 201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시작했다. 총감독은 가수 류의남씨가 맡았다.

모집 대상은 저작권 등록이 안 된 순수 창작곡으로 장르에 제한이 없다. 접수 마감 뒤 22-26일 1차 음원 및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을 선정한다. 이어 현장 경연으로 진행되는 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개 팀(곡)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에게는 대상 10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6팀) 등이 주어진다. 올해는 오월특별상(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신설됐다. 문의 062-682-051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